

정열의 꽃, 동백나무

이 호 준

(건국대학교 생명과학과 명예교수)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나무와 꽃들이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모양을 한 것들은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조물주가 만들 때에 공평하게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떤 나무와 꽃은 아름답고, 어떤 것들은 아름답지 못하고 보기 싫다고 말을 한다. 동백나무와 꽃도 아마도 이런 부류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이유는 동백나무 꽃은 100여개에 달하는 수술과 꽃잎이 붙어서 꽃 한송이가 통째로 그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섬 지방에서는 사형수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고 하며, 일본에서는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꽃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보면 번성하던 집안에 갑자기 불행한 일이 생긴다고 하여 집 주변에 동백나무를 심지 않을 뿐더러 동백꽃 보기를 싫어한다고 한다.

동백나무와 같이 1년 내내 푸르름을 자랑하는 나무들을 늘푸른넓은잎나무(상록활엽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서남해안이나 제주도, 거제도, 완도, 진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많은 섬에 생달나무, 가마귀쪽나무, 다정큼나무, 후박나무, 왕후박나무, 참식나무, 모밀잣밤나무, 구실잣밤나무, 복가시나무, 돈나무, 왕모람, 사스래피나무, 보리장나무 등 일반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늘푸른넓은잎나무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동백나무이며, 과거 우리네들의 생활과 늘 같이 해온 나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동백나무는 이 세상의 모든 나무와 꽃들이 겨울을 보내기 위해 잎과 꽃이 다 떨어져 앙상한 모습을 보이는 겨울에도 서남해안과 섬지방에서 강한 바

닷바람에 시달리면서 언제든지 푸르름을 자랑하면서 자란다. 12월말 경부터 그 이듬해 3, 4월까지 겨울과 이른 봄 사이에 진붉은 꽃잎과 그 속에 노란색의 수술과 광택이 나는 푸른잎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다. 여기에 흰 눈까지 오면 더 아름다운 꽃의 조화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에 때 묻지 않은 순수한 꽃이 피기 때문에 좋아한다. 또한, 동백나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과 중국의 일부 지방에서만 분포하기 때문에 그 희귀성 때문에도 나는 좋아한다. 동백나무가 군락을 이루어 2~3월에 동백꽃이 동시에 필 때의 붉은 모습은 정열이 넘쳐흐를 만큼 보기 좋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백꽃을 봄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동백(冬柏)꽃은 분명히 겨울꽃이다.

나는 1987년 전남 영암의 도곡사에서 종자를 채취하여 실험하고 난 후에 어린 동백나무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나는 현재까지 2그루는 아파트에서 키우고 있는데 매년 12월부터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으며(사진 2), 1그루는 14년전에 이사하기 전 아파트 밖에 심어 놓았는데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도 4~5월에 꽃을 피우며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아마도 기후변화(온난화 현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1. 동백나무의 생김새

그렇다면 동백나무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동백나무(사진 1과 2)는 차나무과에 속하며, 학명은 *Camellia japonica* L.이다. *Camellia*는 250여종에 달하는 동백나무 종류를 의미하는 속명으로 17세기경 Kamell(체코슬로바키아의 선교사)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다. 종소명인 *japonica*는 일본에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자생지가 일본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산동성), 일본(本州, 九州, 四國)의 따뜻한 지방에 주로 자생하고 있다. 내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해안가나 섬지방에서 많이 자라고 있다. 특히 방풍림으로서 식재된 곳도 많으며 반음지 또는 양지성이고 장일성으로 맹아력이



사진 1. 거제도 학동의 동백나무 꽃



사진 2. 아파트에서 가꾸고 있는 동백나무의 꽃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동백나무는 너무 건조하거나 더운 곳은 싫어한다. 너무 건조하거나 더우면 형성된 꽃망울이나 잎은 떨어진다. 아파트 같은 공간에서 화분에 동백꽃을 피우기 힘든 것은 이 때문이다. 서늘한 곳이나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는 꽃을 피울 수 있다. 동백나무는 생약명으로 동백유(冬柏油), 춘유(春油) 등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고, 개화시기에 따라서는 춘백(春柏), 추백(秋柏), 동백(冬柏) 등으로 부르기도 하며, 차를 다려서 마시기 때문에 산다(山茶) 또는 산다화(山茶花)라고도 부른다. 원예품종까지 포함하여 백색, 담홍색, 암홍색 등 여러가지 꽃색을 나타내며 세계적으로 250여종이 알려지고 있다.

나무의 크기는 20m에 달하는 것까지 있다고 하지만 2.5~7m인 야교목 상태의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줄기는 회백색을 나타내며 매끈한 줄기에서부터 울퉁불퉁한 형태를 한 것 등 다양하며 줄기가 밑에서 갈라지기 때문에 나무의 모양은 원형 또는 타원모양(사진 3)을 하고 있다. 잎은 어긋나기며 끝으로 갈수록 점점 뾰족해지며 잎가장자리는 잔톱니모양(사진 4)인데 앞으로 향하고 있으며 타원 또는 긴 타원형이다. 잎에는 Cutin과 Wax질이 라고 하는 물질을 포함한 Cuticle층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높은 온도나 건조한 곳, 염분을 포함한 바람이 많은 곳에서 강하다. 잎이 광택을 내고 있기 때문에 먼 곳에서 보아도 동백나무임을 알아 볼 수가 있다. 잎 표면은 짙은 녹색, 후면은 황록색을 나타내며 잎 전후면에 털이 없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이나 섬 지방에 자생하는 동백꽃은 짙은 적색을 나타내며 꽃잎은 5개이지만 드물게 7개인 것도 있으며, 꽃받침은 5개다. 홑꽃, 겹꽃 등 다양하며 꽃가지 끝이나 잎 겨드랑이에 1개씩 달리고 꽃자루는 없다. 꽃 속에 진한 황색의 꽃밥이 적색의 꽃잎과 광택이 있는 녹색의 잎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동백나무만이 가지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다. 꽃이 지고 난 다음 7~8월경부터 꽃눈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어떤 것들은 11월 말이나 12월이 되면 빨간색의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다. 암술은 1개이고 노란 수술에 싸여있다. 자방에는 털이 없으며 3개로 갈라진다.



사진 3. 선운사 동백나무숲



사진 4. 동백꽃망울과 잎 가장자리 모양

열매는 초록색이었다가 익어가면서 적갈색(사진 5)으로 변한다. 완전히 성숙 되면 열매는 3갈래로 갈라지며, 그 속에 암갈색의 종자가 1~3개(사진 6) 들어있다. 꽃의 밑부분에 꿀샘이 있는데, 시골아이들이 벧짚대롱으로 이 꿀을 빨아 먹으면서 놀기도 한다.

동백나무는 다른 식물들과 같이 바람이나 곤충, 물에 의해서 꽃가루받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에 의해서 꽃가루받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꽃을 조매화라고 한다. 벌과 나비와 같은 곤충이 겨울에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겨울에 피는 동백꽃은 동박새라고 하는 새에 의해 꽃가루받이가 이루어진다. 동박새는 머리, 등, 날개, 꼬리가 황록색이고 옆구리는 갈색, 배는 흰색, 턱밑은 노란색으로 상록수림에서 번식하는 텃새다. 거미류, 진드기류, 곤충류, 연체동물 등을 먹이로 하지만 동백꽃의 꿀이나 열매, 매화꽃의 꿀, 후박나무의 열매를 주로 먹는다(윤무부, 1996). 동박새가 동백꽃의 밑부분에 있는 꿀을 먹을 때 꽃가루받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백나무와 동박새는 서로 돕고 사는 공생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동백나무와 동박새에 얽힌 전설

동백나무와 동박새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옛날 어떤 나라에 두 형제가 있었다. 형은 그 나라의 임금이고, 동생은 고을의 성주였다. 임금인 형은 마음씨가 포악하고, 동생은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었다. 동생은 두 아들이 있었으나 임금인 형은 임금의 자리를 이어갈 아들이 없기 때문에 늘 동생인 성주와 동생의 두 아들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면서 지냈다. 그 이유는 임금이 아들이 없기 때문에 동생과 그의 아들이 언제 임금을 해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임금은 동생과 그의 아들을 죽일 기회만 생각하다가 동생에게 두 아들이 보고 싶으니 두 아들을 궁궐 안으로 보내라고 하였다. 그런데 착한 동생은 임금인 형의 이런 생각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과 닮은 사람을 양자로 삼고 진짜 두 아들은 다른 곳에 숨겨 두었다. 그러니까 동생은 진짜 두 아들을 임금에게로 보낸 것이 아니고 양자로 삼은 두



사진 5. 적갈색으로 성숙되어 가는 열매



사진 6. 열매가 성숙한 후 3갈레로 갈라진 암갈색 종자

아들을 임금에게로 보냈는데, 양자인 두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물론 임금이 양자인 두 아들을 죽인 것이었다. 그 후 임금은 동생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고 다시 동생인 성주와 그의 진짜 두 아들을 궁궐 안으로 불러 동생에게 칼을 주면서 임금을 속였으니 두 아들을 죽이라는 것이었다. 동생이 칼을 가지고 두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두 아들은 새로 변하여 날아갔으며 동생은 임금이 준 칼로 붉은 피를 토하면서 자결하였다. 그 순간 지금까지 찬란했던 궁궐은 황폐한 땅으로 변하였고 그 자리에서 동백나무 1그루가 생겨났으며 붉은 피를 토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동백나무의 꽃이 붉은색이 되었다고 한다. 새가 되어 날아간 두 마리의 새는 동박새가 되었으며, 이 동박새는 아버지인 동백나무에 둥지를 틀고 살면서 동백나무의 꿀을 빨아 먹고 꽃가루받이를 시켜줌으로서 서로 돕고 사는 사이가 되었다. 아직까지도 동박새는 동백나무가 많은 상록활엽수림에 주로 산다고 한다.

3. 동백나무의 분포

우리나라에서는 동백나무를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제주도를 비롯해서 동쪽으로 울릉도까지, 서쪽으로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까지 분포하며,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기도의 해안과 섬지방의 많은 곳에 동백나무가 자라고 있으나 울릉도나 백령도보다 더 북상하여 분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곳은 대청도의 동백나무(천연기념물 66호, 인천 옹진군), 백련사의 동백나무(천연기념물 151호, 전남 강진군), 마량리 동백나무(천연기념물 169호, 충남 서천군), 고창 삼인리의 동백나무(천연기념물 184호, 전북 고창군), 거제도 학동의 동백나무(천연기념물 233호, 경남 거제시)이며,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오동도의 동백나무, 산전체가 동백나무로 덮혀 있는 진도 침찰산 동백나무, 완도의 상항봉을 중심으로 한 동백나무 등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우수한 동백나무숲이 매우 많다. 내가 직접 답사하여 확인한 영암 월출산 금릉경포대계곡과 도갑사 동백나무, 목도, 홍도, 흑산도의 동백나무, 남해 도서지방의 거문도(흰동

백과 분홍동백이 자라고 있다), 소거문도, 백도, 진도 인근의 도서지역, 해남의 대흥사 동백나무, 완도 인근의 도서지역(생일도, 보길도, 청산도 등), 거금도, 백도, 금오도, 전남 장흥군 천관산 동백나무(유전자 보호림), 서남해 도서지방인 조도지역(하조도, 죽향도, 독거도, 청등도 등), 외연도 지역(오도, 황견도, 대청도), 덕적군도의 인근도서(울도, 백아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에서 우수한 동백나무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 볼만한 동백나무숲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청도, 소청도의 동백나무를 들 수 있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는 지리적으로 난류와 한류가 교차되는 곳으로 난대성 식물의 자생 북한지대로 중요한 지역이다. 동해 쪽의 동백나무숲은 울릉도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동백나무의 자생북한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울릉도보다는 대청도가 더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청도의 동백나무(천연기념물 66호)가 자생북한지인 것이다. 대청도의 동백나무는 60여년 전만 하더라도 가슴둘레 직경이 약 30cm, 수고 약 3m인 동백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으나, 그 후 불법 채취(꽃다발, 땀감, 분재, 꽃꽂이용 등)에 의해 많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대청도 면소재지인 선진동에서 섬을 일주하는 도로를 따라 사탄동 북쪽 표고 약 240m 지점에 3군으로 약 100여 개체가 밀생되어 있다. 과거에 자생하고 있던 동백나무는 6.25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땀감으로 파괴되었고 후에 누군가에 의해 인공 조림되어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대청도의 동백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으나, 대청도로부터 남동방향 약 10km에 위치한 소청도의 동백나무는 일반인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소청도의 동백나무는 예동마을 천주교회 후사면을 중심으로 약 70여 주가 자리잡고 있으며, 수고는 약 2~3.5m, 흉고직경 14~35cm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소청도에는 예동마을에서 동쪽으로 약 700m지점과 1.5km 지점의 급경사지(흰바위 부근)에도 50여주의 동백나무가 자라고 있다. 소청도 예동마

을의 경동 민박 주인인 라상선 씨의 말에 의하면 소청도는 도처에 노거수의 동백나무 수백주가 있었다고 한다. 동백꽃이 피게 되면 섬 전체가 온통 붉은색으로 변하였다고 하며 50년 전부터 땃감, 분재, 꽃다발용으로 불법채취되기 시작하면서 훼손되어 현재의 동백나무 밖에는 볼 수 없다고 한다.

내륙에서 동백나무가 자라고 있는 곳은 구례 화엄사 좌측 사면에 있는 동백나무다. 나무 높이는 약 5~8m, 줄기의 가슴둘레 직경은 20~35cm 정도인 나무의 수령은 약 100~150년생 이상일 것으로 생각되며, 원래는 인공조림된 것이었으나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자연림화 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동백꽃하면 모든 사람에게 떠오르는 곳이 있다. 여수의 오동도다. 오동도를 덮고 있는 나무의 대부분이 동백나무이기 때문에 동백섬이라고도 한다. 38,000여평의 섬에 수백년 된 수천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하늘을 덮고 있을 정도다. 꽃이 필 무렵에는 동백꽃 정원을 연상케 하며 꽃이 만개한 동백나무 아래에서 봄이 오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한다. 동백꽃이 통째로 떨어지면 평탄한 산책로는 울긋불긋한 꽃길로 변하고, 가족이나 연인들끼리 손을 잡고 거닐면서 동백꽃을 감상할 수 있어 연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곳이다. 12월부터 그 다음해 3월에 개화의 절정을 이룬다. 이러한 오동도의 동백꽃은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오동도는 원래 벽오동나무가 울창하게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동도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오동나무가 없는 섬이라고 한다. 이 오동도에 조선조 초에 귀양 온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날 남편이 고기잡이를 나간 사이에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한다. 아내는 집에 있는 것을 몽땅 내주었지만 도둑들은 몸까지 요구하였다. 아내는 도망쳐 고기잡이 나간 남편이 항상 돌아올 때면 정박하는 동쪽 낭떠러지 바다에 몸을 던져 투신자살하였다. 날이 저물 무렵 고기잡이에서 돌아온 어부는 절벽 밑에 둥둥 떠 있는 아내의 시체를 발견하였다. 어부는 아내의 시체를 섬 정상에 묻었다. 이 일이 있은 지 몇 년 후 북풍한설 내리치는 그해 겨울부터 하얀 눈이 쌓인 무덤가에 여인의

절개를 나타내는 시누대와 붉은 순정의 꽃이 피는 동백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 이후부터 오동도에는 오동나무 대신 동백나무가 많이 번져 눈보라 속에서도 빨간 꽃을 피우기 때문에 동백꽃을 일명 여심화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한국관광공사, 미리가본 여행).

또 하나의 동백나무는 천연기념물 184호로 지정된 전북 고창군 삼인리의 동백나무다. 보통은 선운사 동백나무(사진 3)라고도 한다. 삼인리 동백나무는 백제 위덕왕 24년(577년) 선운사가 세워진 후 절의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 동백나무의 기름을 짜서 절의 살림에 도움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인공림이라고 한다. 선운사 대웅전 뒤로부터 도솔암에 이르기까지 약 5,000여 평에 3,00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며, 수령은 약 300~500년으로 추정되며 줄기의 가슴둘레 직경은 약 15~35cm에 이르는 것이 대부분이다. 5월까지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해서 관광객들의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선운사의 동백꽃은 송창식이 부른 노래의 가사에도 잘 나타나 있으며, 선운사 앞의 미당 서정주 선생의 시비가 있는데, 이 시비에 선운사 동구(洞口)라는 시에 ‘선운사 고성으로 선운사 동백꽃을 보러 갔더니...’로 시작되는 시에도 동백꽃을 그리고 있다.

그 다음은 천연기념물 169호로 지정된 충남 서천군 마량리의 동백나무도 자랑할만한 곳이다. 해안가 낮은 언덕에 동백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으며, 이 정자 주변에 8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흩어져 있다. 나무 높이는 2~3m 정도이며, 원줄기에서 가지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나무의 모양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다. 이 동백나무의 전설은 약 300여년전 이 지방의 관리가 꿈에서 바다 위에 떠 있는 꽃다발을 보고 바닷가에 가보니 꽃이 있어서 가져다 심었는데 이 꽃이 자라서 현재의 동백나무숲이 되었고, 사람들은 매년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며 고기잡이에 재앙이 없기를 빌었다고 한다(문화재청 문화재정보센터, 남한의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151호로 지정된 전남 강진군 만덕리에 위치한 백련사 동백나무도 유명하다. 약 4,000여 평에 1,500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자라고 있다. 동

백나무의 높이는 평균 4~6m쯤 되고, 동백꽃이 필 무렵이면 매우 아름다워 이 지역의 명소로 알려져 있다. 동백나무의 유래에 관하여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으나,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인 다산초당이 가까이 있고, 이곳에서 다도 연구를 했던 것으로 미루어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다산 정약용 선생은 다(茶)생활을 즐기며 이곳의 동백나무숲을 즐겨 찾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백련사의 동백나무는 우리나라의 난온대지방을 대표하는 나무인 동백나무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정약용 선생과 관련된 문화적 장소로서의 가치도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동백꽃이 필 무렵 백련사로 들어가는 길가 양쪽은 장관을 이루어 이곳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문화재청 문화재정보센터, 남한의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233호로 지정된 거제도 학동의 동백나무와 팔색조변식지도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거제도에서는 이곳만 동백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거제면 외간리의 동백나무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일운면 구조라, 동부면, 남부면의 북병산, 노자산, 가라산, 갈골저 등의 동백나무도 유명한데, 이 지역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심히 파괴된 상태이다.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지심도의 동백나무(거제시 관광진흥과)는 약 22만여평의 면적 중 60~70%가 동백나무로 가득 차 있다. 12월초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이듬해 4월 하순경까지 피고 지기를 거듭하면서 동백꽃만의 요염한 자태를 뽐내며 많은 관광객을 유혹하고 있다.

4. 동백나무의 쓰임새와 번식

이와 같이 우리네들 주변의 동백나무는 오랜 세월동안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동백나무는 줄기, 잎, 꽃, 종자 등 모든 것이 우리네들의 생활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동백나무는 노래(이미자의 동백나무...), 시비, 목화나 그림의 소재 등으로도 많이 사용되었지만 동백나무하면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동백기름(樅油, 동백유)만을 연상한다. 동백나무의 종자에는 40~65%의 잘 마르지도 않고 굳지도 않으며 변하지도 않는 기름이 들

어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쓸모가 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화장품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낙네들의 화장품 대용을 식물에서 많이 얻어 썼다. 그 중의 하나가 분꽃이며 분꽃열매가 익으면 갈아서 얻은 흰 가루를 분으로 대신 사용하였다. 동백기름도 옛날에 아낙네들이 머릿결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오래 유지하고 윤기를 내게 하며 머릿결이 갈라지거나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머리를 손질할 때 많이 사용하였다. 도장을 찍을 때의 인주, 칼이나 정밀기계의 녹스는 것을 방지하고 시계같이 정밀한 기계에 윤활유로 사용하였으며, 비누를 만들거나 옛날 전기가 없는 시절 호롱불 대용으로 널리 사용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식용유는 물론이고 동백기름과 꿀, 달걀의 노른자를 섞어 먹으면 천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한다.

기름을 짜는 방법은 종자를 말린 다음 껍질을 제거하고 순수한 종자만 부수어 가루로 만든 다음 찹통에 넣어 찌서 압착기를 이용해서 누르면 기름이 흘러나온다.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는 다시 한 번 압착기를 이용해서 두번째 기름을 짜낸다. 이렇게 해서 얻은 동백기름은 황색을 나타내고 잘 건조되지도 않고 굳지도 않으며 변하지도 않는다. 또한, 동백나무의 재질은 짙은 황갈색을 나타내며 견고하고 균질해서 접는자, 나무방망이, 악기, 농기구와 농기구의 자루, 양산이나 우산의 자루, 장기알, 주산알, 열계빔, 다식판, 가구 등 옛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생활 필수품을 만들어 사용했다. 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땔감으로 사용되었고 그 재는 잎이나 가지의 재와 함께 진흙으로 만들어 구운 토기나 기타 물건을 연마해서 윤을 내는데 사용하였다. 염색할 때 자색을 내는 데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도자기를 구울 때 자색을 내는 유약으로도 사용했다.

동백나무의 싱싱한 푸른 잎과 꽃의 아름다움 때문에 관상용으로 정원에 가꾸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서남해안이나 섬지방의 해풍이 강한 곳에서는 동백나무가 내염성이 강해 방풍림으로도 사용된다. 특히 일본사람들은 정원이나 집 주변에 많이 가꾸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삼목이나, 종자를 발

아시켜 어린 유목을 만든 다음 수십년간 화분에서 소노목(小老木)으로 가꾸어 분재용으로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값에 거래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산에 자생하는 동백나무를 전정가위로 잘라 분재용으로 모양을 만든 다음 시간이 지난 후에 화분에 옮겨 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많은 동백나무가 수난을 당하고 있다. 이른 봄에 피는 동백꽃과 푸른잎이 붙은 가지를 통째로 잘라 결혼식이나 졸업식의 축하용 꽃다발, 겨울철 꽃꽂이용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더 많은 수난을 당해 왔다. 분재나 어린 동백나무를 파내어 자기집 정원에 심기 위해 캐어난 흔적을 여러 곳에서 볼 때마다 자연사랑에 대한 생각을 더하게 한다.

잎은 연초대신 사용되기도 하고 연초를 마는데 사용되었으며, 말린 잎은 해충 구제용으로도 사용되었다. 여름철에 학생들과 함께 섬 지방에 조사를 나가서 저녁식사를 하는데 모기떼의 극성에 견딜 수가 없었다. 이때 민박하는 주인의 말이 건조시킨 동백나무잎이 저쪽에 있으니 가져다가 불을 피우라는 것이었다. 주인의 말대로 했더니 극성 피우던 모기떼로부터 피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말린 동백나무의 잎은 모깃불을 피우는데도 사용되었다. 봄에 돋는 어린 잎을 소금물에 살짝 데친 다음 나물로 무쳐먹거나 전을 부치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동백나무의 잎을 가지고 동백떡을 만들었다고도 한다. 또한, 동백꽃을 생약명으로 산다화(山茶花)라고 하여 차를 다려 마시기도 하며 튀겨서 먹기도 한다. 이른 봄에 완전히 피기전의 꽃을 채취하여 건조시킨 다음 끓여 마시면 하혈이나 산후출혈, 월경과다 등은 물론 이뇨작용에도 효과가 있으며, 건조한 꽃잎은 지혈작용도 있다고 한다. 거제도 학동 동백나무숲에 조사하러 갔다가 칙닝쿨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바위에 부딪혀 무릎에서 피가 난적이 있는데 이때 건조되지 않은 동백꽃이지만 이겨서 상처에 붙였더니 지혈이 되어 화를 면한 경험이 있다. 또한, 잎이나 꽃을 그늘에서 말려 건조시켜 가루로 만든 다음 참기름과 반죽하여 상처에 바르면 화상과 타박상이 낫을 뿐 아니라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가 있다.

동백나무의 번식은 주로 초가을에 삽목을 해도 되지만 열매가 성숙한 후

3~5일간 물에 넣어두면 부실한 종자는 물에 뜨기 때문에 제거하고 물에 가라앉은 충실한 종자를 젖은 모래와 함께 땅에 묻은 다음 이듬해 3~4월에 꺼내서 파종을 한다. 비옥한 토양이나 물빠짐이 좋은 땅, 반음지 또는 양지 바른 장소에서 잘 자란다.

위에서 동백나무에 관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동백나무나 꽃은 허술한 데가 한 곳도 없다. 우리네 생활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 나무다. 동백꽃의 꽃말이 “자랑” 또는 “그대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우리네들의 생활과 함께 살아온 동백나무가 꽃다발, 겨울용 꽃꽂이, 분재를 비롯한 기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불법채취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자연보호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을 다짐해 본다. 또한, 늘 푸르고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서 정열에 넘치는 붉은 꽃을 피우는 동백나무처럼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자랑스럽게 살기를 소망해 본다.